

바이든, 동맹복원 고립주의 종지부 선언

제46대 美대통령 공식취임...“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

취임연설 北·中·이란 등 긴장관계 국가 언급은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국제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고립주의적 정책이 종지부를 찍고 힘을 앞세우는 대신 동맹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4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면서 이같은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시험을 받았고 우리는 더 강해졌다”며 “우리는 어제의 도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히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발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연설은 그동안 강조해온 대외 정책 기조를 집약해 보여준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기조 아래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이후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안보팀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면서 미국은 동맹

과 협력할 때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신고립주의’를 지속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 추락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 합의 등 각종 국제 협정에서 탈퇴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분

담금 축소 등을 통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동맹에 대해서도 ‘무임승차’ 등의 용어를 써가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결속력을 약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전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선언이자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 및 동맹 중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방주의 정책에서 선회,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를 토대로 한 정책을 추진, 국제 질서 재편을 선도할 전망이다.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인권 등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다자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 때 소원해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유럽 동맹과의 결속력을 다지고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도 강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중국 등 제제가 다른 경쟁국에 맞서 공조 확대도 예상된다.

연설에서 중국이나 북한, 이란 등 긴장 관계에 놓인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연합뉴스



군 의장대 사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군의 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시작은 ‘트럼프 지우기’...코로나 극복·국제사회 복귀 ‘방점’

첫 업무 행정명령 17건...분열 치유 ‘바이든 시대’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온갖 갈등을 일으키며 밀어붙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되돌리면서 바이든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 빠르게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종차별 완화 목표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 일부 이슬람국가 국민의 입국금지 철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비

상사태 효력 중단 등 조치도 내렸다.

그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5건의 행정조치와 2건의 기관 조처 등 모두 17건의 서류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정오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5시간 만에 의회 동의를 필요 없는 사안을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정책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물론 그에 앞서 통합을 기치로 내건 취임사를 통해 역대 최악의 분열을 유산으로 남긴 트럼프 시대와의 결별을 알렸다. 또 동맹 회복과 다자주의 복귀 천명으로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된 트럼프

의 고립주의의 기조의 종말도 선언했다. 취임사로 진로 전환을 공식화했다면 행정명령은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은 대통령으로서 집무실에서 한 첫 업무였다. 국제사회를 주도할 미국 역량을 약화함은 물론 국내 분열을 부채질한 트럼프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 정상화의 길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복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종 평등 보장 등 3건의 행정명령을 언론 앞에서 공개 서명했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파기한 파

리기후협약의 취임 첫날 복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기후특사를 신설,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지낸 중량급 있는 존 케리

를 그 자리에 앉힌 것만 봐도 그가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에 대한 허가 철폐 명령도 그 연장선이다. 여기엔 기후문제가 심각한 지구 환경적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전 세계가 동참한 국제협약을 미국이 이

끌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거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미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구상도 그 기저에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n차 감염’ 영암에 이동선별검사 버스 투입

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41명...22개 시·군 중 가장 많아

영암지역에 ‘n차 감염 확산’으로 올 들어 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총총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전남도가 총역량을 집중한다.

지역감염 차단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전국 최초 도입해 호평받고 있는 ‘이동선별검사 버스’를 투입, 운영한다.

전남도가 발표한 지난 1일부터 21일 현재까지 22개 시·군 코로나19 지역감염 발생현황에 따르면 영암 확진자는 41명, 순천 38명, 나주 18명, 광양 10명, 해남 4명, 영광·강진·화순 3명, 목포·보성·진도 2명 등 도내에서 총 1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도내에서는 영암 3명, 나주 1명 등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693-696번으로 분류됐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696명(지역감염 634명, 해외

유입 62명)으로 늘었다.

최근 영암에서만 관음사 3명 확진을 시작으로 마을주민과 고구마 농장, 어린이집과 건설현장 등 추가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또 영암지역 n차 감염으로 강진 3명, 나주 3명, 목포 1명 등 총 47명이 발생해 전남도는 추가 확산차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 즉각 대응팀과 질병관리청 호남센터 역학조사단은 합동으로 CCTV 영상 및 GPS 이동경로를 분석해 추가 접촉자와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등 지역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영암에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 버스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상황 종료시까지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후성기자

지난해 전남 농수산물 수출 역대 최고

전년 대비 2.2% 증가한 4억6천만 달러 달성

전남도는 21일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2% 증가한 4억6천만 달러를 달성,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3억2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7년 3억5천만 달러, 2018년 3억9천만 달러, 2019년 4억5천만 달러, 2020년 4억6천만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산가공식품과 수산물 등이 큰 성과를 냈다.

농산가공식품의 경우 김치와 장류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9년 7천500만 달러 보다 16.1% 증가한 8천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산물은 김, 조기, 해조류와

가공식품이 성장해 2019년 2억6천200만 달러 대비 5.5% 증가한 2억7천7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전남도 10대 수출 효자품목 중 하나인 톳의 경우 주로 일본 내 학교 단체급식용으로 수출이 이뤄졌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대체 등 단체급식 제한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배도 저온 피해와 태풍 낙과로 생산량이 급감해 수출이 2019년보다 저조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이 2019년 대비 1.6% 감소한 1억4천800만 달러로 최대 수출국으로 확인됐으며 미국이 32.5% 증가한 1억300만 달러, 캐나다는 22.1% 증가한 1천400만 달러, 러시아는 46% 증가한 1천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김재정기자

▶1면 ‘소상공인 긴급자금’서 계속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을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이며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

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등은 1%를 추가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은 2월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제3차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집합금지 영업에 못맞춤에도 시중은행 융자지원에서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정경수(430531-*****)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28 조 제2항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3890 상속한정승인

○공 고 안: 정상민

○한정승인수리일: 2021년 1월 11일

○공고기간: 2021년 1월 22일 ~ 2021년 3월 22일

○연 락 처: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2, 201동 1001호 (구미동, 까치마을) (010-6569-0829)

부동산경매 기초부터 전문가까지 완성

부동산경매 이론과실무 (기초과정 부터 전문가과정)

부동산경매 사관학교 (최고전문가과정)

시 간	매주 화요일	주간) 15:30~17:30 야간) 19:00~21:00	매주 목요일	야간) 19:00~21:00
수강료	15주 : 220,000원		15주 : 250,000원	
개 강	2021. 03. 02. 화요일		2021. 02. 04. 목요일	
접 수	2021. 01. 18. - 2021. 02. 25. 까지			
접수처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행정실 또는 인터넷접수			

대 상

-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나 자신이 없는 분
- 부동산 관련 법률용어조차 전혀 모르신 분
-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경매에 종사하고 계신 분
- 경매전문가로서 더 깊은 권리분석을 원하신 분
- 노후대책 및 업종변경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수강후에도 동호회 가입으로 지속적인 정보교류※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시간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신청 062)230-7700~2 (인터넷신청)